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려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알 림

12월 18일(일)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12월 21일(수)	경로당 월례 미사(소성전, 11시)

※ 새벽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회 의

- 사목협의회
 - 일 시 : 12월 29일(목), 19시 40분
 - 장 소 : 강 당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울드레아	12월 18일(일), 11:40	강 당
3Cu-사랑의 모후	12월 18일(일), 13:00	강 당
성체분배자회	12월 25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 조배실

성탄 및 송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24일 (토)	아침미사	아침 6:30
	성탄 밤미사	저녁 8시, 밤 10시 30분(중고등부) (저녁7시 미사 없습니다.) ※ 대림실천표(대림저금통) 제출
25일 (일)	성탄 대축일	10:30, 12:00, 13:00(유초등부), 19:00 (6:30 미사는 없습니다.)
31일 (토)	아침미사	아침 6:30
	송년미사	저녁 8시 (저녁7시 미사 없습니다.)
2023년 1/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06:30, 10:00(중고등부), 10:30, 12:00, 19:00

주일학교 성탄제

- 중고등부
 - 일 시 : 12월 24일(토) 19:20
 - 장 소 : 소성전
- 유·초등부
 - 일 시 : 12월 25일(일) 14:00
 - 장 소 : 소성전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 주일반(일, 오전 9시), 평일반(화, 오후 8시)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11월 30일 현재 ₩20,050,000 납부되었습니다.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

1. 미사 참여 의무 :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
2. 금육과 단식 의무
 - 금육 : 연중 매주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 단식 : 성금요일과 재의 수요일
3. 고해 성사의 의무 : 부활과 성탄(판공성사)
4. 영성체의 의무
5. 혼인성사의 의무
6. 교무금과 헌금 납부의 의무
 - 성당의 유지와 사업을 위해 가정 단위로 교무금을 내야하고, 헌금을 각자 정성껏 봉헌합니다.

다음 주일(12/25)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0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12월 7일 ~ 1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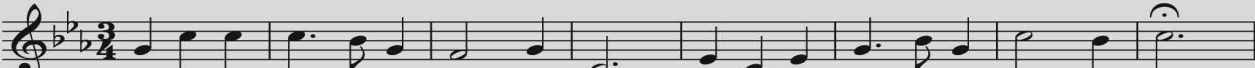
• 교 무 금		12,316,000원
• 주일헌금		4,738,000원
• 자선 주일 2차 헌금		2,023,850원
	강계화10만원	김정희 3만원 차영식10만원
	이길자10만원	이○○ 5만원 구자숙10만원
• 감사헌금	이길자 6만원	정종국10만원 양○○ 5만원
	이리호 5만원	김정숙 1만원 김영호10만원
	김혜선 5만원	서만심 5만원 김정민24만원
	김시아 5만원	익 명50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2/18	최경희	오성환	김영균
12/25	이영민	신종구	최상림
			최웅조
			구민서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2/18	박용환	최영만	박승환	김인기
12/25	박형순	이운영	오광운	최석준
				장인홍



주 님 이 들 - 어 가 신 다 영 광 의 임 금 님 이 시 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42.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과 우리 민족의 얼을 해치는 분노를 키우거나, 또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말겠다는 해로운 집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누구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삶과 화해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가정도 그 어떤 친교 집단도 그 어떤 민족도 국가도 그들을 일치시키고 한데 모이게 하며 서로의 차이를 덮어 주는 동기가 복수와 증오라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복수하려고,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에게 그가 하였던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겉으로 보기에는 적법한 형태로 보복의 기회들을 모의하려고, 우리가 합의하거나 단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243. 물론 “분쟁이 남긴 불의와 적의와 불신의 쓰라린 대물림을 극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고(로마 12,21참조) 화해와 연대와 평화를 증진하는 그러한 덕들을 기를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안에 선을 키우는 사람에게, 이 선은 어려움과 몰이해 속에서도 평온한 양심과 심오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선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접을 수 있을 정도로 참다운 강인함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각자 “내 형제자매에 대한 마음속 차가운 판단, 치유되지 않은 상처, 용서받지 않은 잘못, 나를 아프게 할 뿐인 원망, 이러한 것들이 자기 마음을 어지럽히는 갈등의 파편이라는 것을, 곧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타오르기 전에 꺼야 하는 마음속 불씨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극복

244.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은폐되거나 과거의 일로 묻혀 버릴 때, 중대한 잘못과 죄에 대한 공범자로 만들 수 있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화해는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화해는 오히려 갈등 속에서, 대화와 투명하고 성실하고 인내로운 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들 사이의 다툼이 “적대감과 서로의 증오를 멀리한다면, 점차적으로 정의의 추구에 기초를 둔 정직한 토의로 변합니다.”